

중동세+블래터 야합...예상 뒤엎은 '도하참사'

정몽준 부회장 낙선 왜?

정 부회장 '차기 FIFA회장직' 출마설 작년부터 블래터 회장과 불편한 관계 '왕족' 후세인은 중동지역 든든한 후원 韓축구 대변인 상실...외교력 치명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 축구연맹(FIFA) 부회장직을 상실하면서 한국축구가 충격에 빠졌다.

정 명예회장이 6일(한국시간) 열린 AFC 총회에서 거행된 FIFA 부회장 투표에서 패해 AFC 핵심 인사 가운데 한국인은 단 한명도 없게 됐다. 이번 AFC 총회에서는 AFC 회장(1명)과 FIFA 부회장(1명), FIFA 집행위원(4명) 등 주요 임원들을 선발했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을 제외하면 한국인 중에는 누구도 이번 총회에서 거행된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

●중동과 블래터의 야합에 무너지다

중동의 힘은 막강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 명예회장을 누른 상대는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이다. 요르단축구협회장과 서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요르단 압둘라 국왕의 동생으로 서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왕족들이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아랍지역에서 든든한 후원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오일달러의 힘은 막강하고, 끈끈했다.

FIFA 제프 블래터 회장이 올 5월 열리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알 후세인 왕자에게 FIFA 부회장 출마를 권유했고, 지원했다는 설도 있다. 블래터 회장과 정 명예회장은 계속 껄끄러운 관계였다.

지난해 말에 나돌았던 정 명예회장의 차기 FIFA 회장 출마설도 블래터 회장 입장에서 거슬리는 일이었다. 블래터 회장이 AFC에 할당된 FIFA 부회장 선거에 관여할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외교력을 상실한 한국축구

정 명예회장은 FIFA 부회장을 맡아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7년 FIFA U-17 월드컵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힘을 과시했다. FIFA 올림픽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FIFA와 AFC에서 막강한 파워로 한국 축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의 이번 선거 패배로 한국축구의 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축구에서는 정 명예회장을 제외하면 FIFA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없다. FIFA는 고사하고 AFC 내에서도 한국축구를 대변할 수 있는 마땅한 인사가 없다.

AFC와 FIFA에서 적지 않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몇몇 관계자들은 정 명예회장의 최측근들이다. 그들은 이번 선거를 위해 측근지원을 담당했지만 대한축구협회와는 인연이 끊어졌다. 대부분이 정 명예회장이 소유한 현대중공업 임원들이다. 그들이 앞으로 한국축구 외교를 위해 다시 뿔치 미지수다.



아쉬운 작별! 정몽준 FIFA 부회장이 6일(한국시간) 열린 AFC 총회에서 열린 FIFA 부회장 선거에서 패한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도하(카타르) | 로이터연합뉴스)

●정 명예회장의 축구계 행보

정 명예회장은 국외 뿐 아니라 국내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정 명예회장이 사실상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조중연 회장이 실무 맡고 있지만 정 명예회장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다. 한국이 2022년 월드컵 유치에 나선 것도 정 명예회장이 주도적이 역할을 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은 최근 국제축구계에서 2번의 큰 실패를 맛봤다. 지난해 12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렸던 2022년 월드컵 유치전에서 같은 아시아국가 카타르에 밀려 월드컵 개최권을 따내지 못했다. 이어 한 달 만에 진행된 AFC 총회에서 FIFA 부회장직을 놓치고 말았다.

정 명예회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명예회장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축구계에서 가진 직함이 없는 정 명예회장이 지속적으로 축구계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하(카타르)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피말리는 눈치작전...적군도 아군도 없었다

■현장리포트

"선거란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피를 말리고, 늘 어려웠고." 국제축구연맹(FIFA) 5번째 임기에 도전했던 정몽준(60) 부회장의 얼굴에는 피곤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24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가 열린 6일(현지시간) 도하 셰라톤 호텔.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이번 회의에는 FIFA 제프 블래터 회장, 모하메드 빈 함맘 AFC 회장 등 국제 축구계를 이끌어가

는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블래터 회장보다 한 걸음 뒤에 서서 총회장으로 입장했다. 둘의 소원한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대목. 그리고 약 2시간 뒤 정 부회장의 낙선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은 부인 김영명 씨와 함께 호텔 밖에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이용해 숙소로 먼저 돌아갔다. 올해 선거는 유독 치열했다. 눈치작전이 계속됐고, 피아 구분 없는 백병전 양상이었다. 셰라톤 호텔은 총회장이었을 뿐, 대부분의 회의와 작전 전개는 정 부회장의 캠프가

마련된 리츠칼튼 호텔에서 벌어졌다. 특히 호텔 1층 로비에 마련된 식당과 카페가 주 무대였다. 누가 적인지, 누가 우군인지 알 겨를이 없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야 했고 한 번 더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누군가는 "밥 먹을 새도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물론 정 부회장과 격돌한 요르단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자 캠프 관계자들도 부산했다. 선거 결과를 예상해달라는 우문에는 무뎠다. 과거 AFC 경기 감독관 등은

"인살라(신의 뜻대로)"라는 한 마디로 정리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쉼 없이 벨이 울렸다. 사실 정 부회장이 따로 예약해둔 미팅룸 근처에는 사진기를 든 레바논계 여성들이 계속 눈에 밟혔다고 한다. 정 부회장 캠프 관계자들이 누군가와 만날 때마다 이들 여성들은 총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다. 총회 당일 다시 만난 파커리는 "매우 터프한 게임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동이 모두 연합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고, 왕자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 큰 환호성을 내질렀다. (도하(카타르)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강문규 기자 nkkang@donga.com)

믿었던 동남아의 변심 '충격'!

내부의 적...10표 이상 이탈

한때 기적의 땅이었던 카타르 도하는 한국 축구 참사의 현상이 됐다. 당초 정 부회장의 선거 캠프에서는 최소 30표 이상을 무난히 득표할 것으로 내다봤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무려 10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온 셈이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총회장에 있던 AFC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탈락했을 때, 동티모르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권 인사들이 큰 환호성을 질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지를 호소했던 정 부회장은 "우린 인접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심 표를 예측 못했?

도하 리츠칼튼 호텔에 마련된 정 부회장의 선거 캠프에서는 걸프 연안 국가들이 정 부회장 캠프의 바람과는 달리 끈끈히 뭉쳐져 있음이 감지됐다. 총회에 앞서 중동 국가들을 두바이에서 서로 만나 결의를 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 측이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4일과 5일 만났던 정 부회장도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중동 지역에는 총 14장의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한때 정 부회장 캠프에선 왕정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중동세가 양분돼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하지만 적은 중동이 아닌, 전혀 다른 쪽에 있었다.

●또 다른 때때 원인

정 부회장 캠프에서 가장 촉각을 기울인 부분은 모하메드 빈 함맘(62) AFC 회장의 역할이었다. 함맘 회장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투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22년 월드컵 개최권을 카타르로 가져오면서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진 함맘 회장은 일단 중립 노선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함맘 회장이 FIFA 집행위원 선거에 나설 때 정 부회장이 대항마로 나선 셰이크 살만 바레인축구협회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반목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보다 요르단의 경우 상황이 더 좋지 못했다. 당시 요르단은 함맘 회장을 지지하다 경선 직전에 등을 돌려 사이가 멀어졌다. 정 부회장은 작년부터 함맘 회장과 뜻을 함께 하며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요르단은 함맘 회장이 추진한 비전 프로젝트 덕분에 2000년 축구협회 건물까지 선물 받았던 국가였기에 함맘 회장의 분노가 훨씬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이 쓸쓸히 총회장을 빠져나갈 때 함맘 회장의 표정도 잔뜩 굳어 있었다.

특히, 중국 장지통 위원은 애초에 정 부회장을 찍을 수 없었다. 알리 왕자와 가까운 OC A(올림픽평의회) 경기위원장 직함을 맡고 있는데다 FIFA 집행위원 후보로 나선 탓에 먼저 투표가 진행된 정 부회장의 당선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하(카타르)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승자의 환호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축구협회장(오른쪽 끝)이 6일(한국시간) 열린 AFC 총회에서 차기 FIFA 부회장에 선출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하고 있다. (도하(카타르) | 연합뉴스)

고개떨군 선거캠프...정 부회장 쓸쓸한 퇴장

투표 결과가 발표된 순간, 모두가 고개를 떨궜다.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요르단 왕자를 지지했던 세력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정 부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계자들과 함께 총회가 열린 도하 셰라톤 호텔 총회장을 벗어났다. 정 부회장 측근 가운데 AFC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만이 마지막 자리까지 지켰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먼저 정 부회장을 떠나보낸 뒤 호텔 입구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송영식 협회 부회장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겉으로만 지지하는 척했다"며 한숨만을 연신 내뿜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

한 듯 입을 떼지 않았다. 아시아 축구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가삼현 현대중공업 전무와 정 부회장을 수행하는 고승환 상무도 "지금으론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전혀 예상 못한 일이 터졌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정 부회장의 축구협회장 시절 수석처럼 함께했던 주역들이 이번 선거에서 참모역할을 맡았다. AFC 사회공헌위원장 광정환 프로축구연맹 회장은 "한국 축구가 아주 어렵게 됐다. 약소국들이 한국을 견제할 듯 하다. 스포츠 외교력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하(카타르)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